

이 병 호
ByungHo Lee

SPACE SO

이병호는 인체 조각이라는 고전 양식을 대상으로 '시간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조각'을 구현하기 위해 조각에서의 오래된 개념과 재현의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동시대적 감각을 견지하며 실험적인 조각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조각가이다. 조각에서의 '시간성'과 '지속적으로 유동하고 변형하는 상태의 조각'을 제시하는 그의 작업적 태도는 실리콘과 에어 컴프레서를 이용한 <숨쉬는 조각>(2006~) 연작과 2016년부터 이어온 <인체측정> 연작 그리고 인체측정 시리즈로부터 기원한 <익센트릭 아바티> 등 크게 세 개의 시리즈를 이루고 있다.

이병호(b.1976)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대학원 조소를 전공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PIECE》(갤러리 페리지, 서울, 2023), 《Three Shades》(스페이스 소, 서울, 2020) 및 《BLOW-UP》(갤러리 잔다리, 서울, 2009) 등이 있으며 단체전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21), 《반복과 차이: 시간에 관하여》(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9), 《에이징 월드 –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9)와 《Medicine And Art: Imaging a Future for Life and Love》(모리미술관, 도쿄, 2009) 등에 참여했다. SeMA 신진 작가 전시 지원 프로그램 (서울, 2011)에 선정되었고, 경기창작스튜디오(경기, 2013)와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서울, 2010)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과, 수원시립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ByungHo Lee is a sculptor who constantly questions classical concepts and modes of representation in sculpture, maintaining a contemporary sensibility while presenting experimental sculptural methodologies to achieve 'sculptures with temporality that continuously change over time' using the style of human body sculptures. His approach to presenting 'temporality in sculpture' and 'sculptures in a continuously fluid and transforming state' is embodied in three major series: the <Breathing Sculptures> series (2006~), which utilizes silicone and air compressors, the <Anthropometry> series that began in 2016, and the <Eccentric Abattis> series derived from the <Anthropometry>.

ByungHo Lee (b. 1976) received both his B.F.A and M.F.A in sculpture from Hongik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of his work have been organized at PIECE (Perigee Gallery, Seoul, 2023), Three Shades (SPACE SO, Seoul, 2020) and BLOW UP (Gallery Zandari, 2009). Additionally, Lee participated in several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Chronicle of Lost Time (SNU Museum of Art, Seoul, 2021), Repetition and Difference: About Time (Busan Museum of Art, Busan, 2019), Aging World-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Seoul Museum of Art, 2019), and Medicine and Art: Imagining a Future for Life and Love (Mori Art Museum, Tokyo, 2009). Lee has received awards such as SeMA Young Artist from Seoul Museum of Art, Korea (Seoul, 2011), and the 29th Joong Ang Fine Arts Prize, Korea (Seoul, 2007) and has participated in art residencies at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2013) and Nanji Art Studio of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0). His works are housed in collections of esteemed institutions like the Seoul Museum Art, Busan Museum of Art and Suwon Museum of Art.



ByungHo Lee

Eccentric Abattis
2024
acrylic on sculpture
61 x 58 x 42cm

ByungHo Lee

Eccentric Abattis, 2024
(detail)





ByungHo Lee

Eccentric Abattis

2024

acrylic on sculpture
68 x 60 x 24cm



ByungHo Lee

***Eccentric Abattis*, 2024**
(detail)



ByungHo Lee

Eccentric Abattis, 2024
(detail)



ByungHo Lee

Eccentric Abattis
2024
acrylic on sculpture
126 x 72 x 3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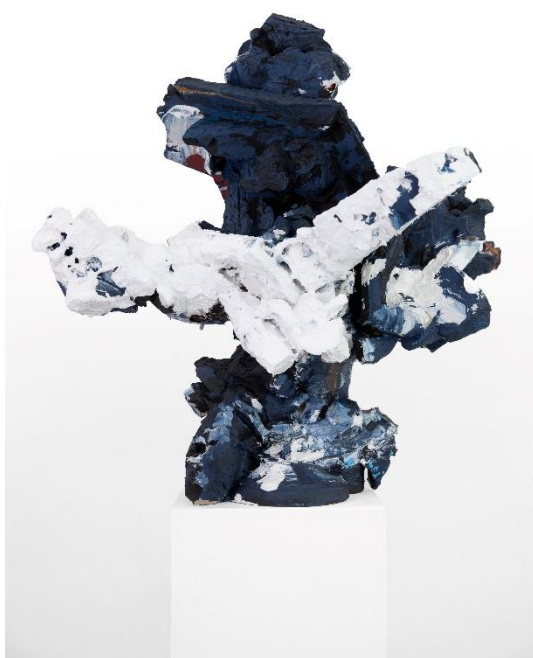
ByungHo Lee

Eccentric Abattis, 2024
(detail)



ByungHo Lee

Eccentric Abattis
2023
acrylic on sculpture
60 x 65 x 52cm



ByungHo Lee

***Eccentric Abattis*, 2023**
(detail)



“<인체측정 Anthropometry>에서부터 <Eccentric Abattis>에 이르는 작업의 특징은 완결성의 결여에 있다.

이것은 작품의 완성단계에서 결정되는 견고한 형태와 표면을 극복하기 위함이고

지속적으로 유동하고 변형하는 상태의 조각을 제시하려는 작업적 태도이다.

복제의 방식으로 단위화된 작업의 재료들은 변형, 해체, 재조합을 거쳐 새로운 원본이 된다.

작업과정 속에서 생산/파생된 조각들은 그 자체로 독자적 작품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마다 또 다른 조각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료 또는 오브제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적 여정은 물리적 공간은 물론 3D 스캔 데이터화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병호

작가노트



개인전 《PIECE》 전시전경, 2023, 페리지 갤러리, 서울



Eccentric Abattis

2023

color plaster on sculpture, 217 x 175 x 121 cm



개인전 《PIECE》 전시전경, 2023, 페리지 갤러리, 서울



Eccentric Abattis

2023

color plaster on sculpture, 300 x 123 x 67 cm



Eccentric Abattis

2023

color plaster on sculpture, Left_88 x 71 x 58 cm / Right_43 x 123 x 63 cm

<어느 한 조각(PIECE)>

신승오 (페리지갤러리디렉터)
개인전 《PIECE》 전시서문

이병호는 초기의 작업에서부터 인체를 작업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견고하게 고정된 조각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조각을 추구하고 있다. 그가 천착하는 주제는 인체의 형태를 다양한 조각적 방법론 안에서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중에 그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아마도 토르소인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토르소의 양감 있는 몸과 더불어 분리돼 버린 머리, 팔, 다리이다. '그렇다면 분리되어 버린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는 연결과 분리, 종속된 것과 독립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가 지속해 작품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Eccentric Abattis>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자. <아바티>는 프랑스어로 가금류의 몸을 제외한 날개, 다리, 내장과 같은 자투리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요리에서 선택받지 못한 부분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의미 없이 떨어져 나간 파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재조합되어 온전한 무엇인가로 다시 나타날 가능성으로 충만한 조형적 대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그의 작업에서 부분이라는 것은 중요한 작업의 테제 중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작가는 복제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의 작업 과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복제에 대해 살펴보자. 작가가 복제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시작점이 되는 원본과 이를 통해 무한히 반복되어 나가는 지속성이 가진 어떤 흐름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자신이 이전 작업에서 만들어 낸 형태들을 복제의 대상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그는 이미 만들어진 형태를 전혀 다른 맥락에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정된 형태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형태들의 재조합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인체의 형태를 규격화된 제품과도 같이 반복적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체는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와 연결을 통해 다른 무엇인가가 되기 위한 재료가 되며, 이에 따라 사람의 형태를 가진 하나의 사물로 변모한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 작가는 이 인체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미지로 전환해 다양한 형태들을 축적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된 이후 여러 조합을 생성하는 재료로서 자유롭게 상호 결합을 이루어 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전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의도치 않게 삭제되는 오류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현상을 모두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이 그의 작품에서 원래의 대상은 한층 더 그 형태적 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완성된 조합은 3D 프린터에 의해 실체를 갖게 되면서 이미 이전의 지시성들은 사라지고 명명하기 힘든 구조로 새롭게 생성된다. 따라서 그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변형시키는 행위를 통해 축적하고 있는 조형적 형태는 그 자체로 그의 조각을 유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재료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렇기에 작가의 의도와 감각에 따라 선택되고 연결된 이 조각들은 그 작품 제목에 사용한 <Eccentric>의 의미처럼 기괴하고 기이하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어떤 이유에서건 일시적으로 동요하여 일어난 것을 감지하여 반응하는 감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선형적 시공간이 뒤틀린 형태로 드러난다.

이제 전시의 제목인 《PIECE》를 통해 부분의 의미를 살펴보자. 그가 조각,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를 전시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부분은 온전한 하나로 온전한 하나는 다시 어떤 부분으로 순환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함이다. 그렇기에 부분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이병호에게 있어서 인체 조각은 몸을 표현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조각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인 덩어리, 무게, 실존, 변함없음, 고정된, 완전함 같은 단어에서 벗어나 가볍고, 변화 가능성이 충만하고, 특정한 의미에 고정되지 않은 조각에 다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의 부분을 고정된 시공간에 머물러 부분으로 남기기보다는 반복적 축적을 통해 자유로운 형태를 가진 온전한 하나의 대상으로 변모시킨다. 이는 부분을 뚜렷한 형태를 가진 조형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내면의 심층이 가진 본질을 드러내려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간다. 작가는 이런 태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인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부분적으로 해체하고 결합함으로써 눈앞에 등장할 수 없는 새로운 현존을 암시하는 일시적 형태를 제안한다. 이들은 명확한 규칙에 의해서 전체에서 분리되지만, 다분히 즉흥적이고 연극적인 분위기로 진행되기에 이 부분들은 비정형적이며, 그 어떤 것과도 이어질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따라서 작가에 의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는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추출되어 새로운 부분들의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결들은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Eccentric Abattis>는 전시장에서 개별의 작업인 동시에 하나의 작업처럼 보이기도 하며,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들은 추상적인 모습으로 읽힌다.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들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결합하기도 하지만 분리된 채 놓이기도 하며, 부분과 부분들은 그 연결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연결된 부분의 흔적이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고스란히 노출되거나 균형이 잡힌 형태가 아니라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색을 작품의 표면에 사용하고 있는데, 거즈를 붙여 새로운 표면을 만들거나 석고에 색 안료를 섞어 도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색의 표현은 외부의 색이 내부로 침투하거나 내부의 색이 외부로 발산되는 듯한 느낌을 주거나 전체의 형태와는 다르게 세부적인 질감을 통해 무엇인가를 덧붙인 효과를 보인다. 그는 붓을 마치 조각의 도구처럼 인식하고 색을 칠할 때 긁어내거나 깎아내고, 덧붙이고 덜어내는 것과 같이 사용하는데, 작가는 이러한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을 소조 작업하듯이 진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형태를 따라가거나 무시하고, 이미 만들어진 표현의 틀에서 벗어나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진 대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마치 퇴적층처럼 쌓여 나가는 모습으로 압축된 시간을 감각하게 해준다. 이는 작가의 감각에 의존해 나타난 의도를 가지고 완성된 형태를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진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감각적 본질을 표면의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만들기 위함이다. 따라서 작가의 이러한 태도는 끝없는 밀어냄과 끌어당김, 유한성과 무한성 사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발적인 표면과 필연적인 균열의 발생을 유발한다. 결국 이병호가 의도하는 것은 각자의 형태가 가진 본질들이 서로 순응하게만 만들기보다는 충돌하듯이 맞닥뜨려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이 동시에 드러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고요하던 부분과 관객 모두를 동요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그는 '무엇이 부분이고 전체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이어 나가게 되는지 그 순환의 과정을 작업의 표면을 통해 더듬어 나가고 있다.

여기서 다시 그의 작업의 시작점이 된 인체로 돌아와 보자. 인체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명칭들이 있다. 이들은 손, 발, 뼈, 근육, 장기 등과 같이 인간의 내부와 외부의 형태와 기능에 의해 구분되지만, 작가는 이러한 명칭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각으로 구분하고 그 부분들을 개별적 형태를 가진 대상으로 만든다. 이들은 인체라는 종합적 집단에 속하면서도 구체성을 띤 명칭을 획득할 수 없으며, 각자의 부분에 의해 연결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독립된 존재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보여주는 변형된 부분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전체의 형태는 무엇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일단 작가는 이들에게 '기이한 부분'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면 그는 인체에서 출발하지만, 어떤 선택들에 의해 제시되는 새로운 근원을 바탕으로 우연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새로운 형태들이 만들어진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에서는 사실 그 어떤 전조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는 더 이상 그것이 원래 어떤 것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반드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인체라는 명사도 가시적인 공동의 호칭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특정한 인식을 반영하는 분류의 범주, 어떤 성질의 다발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체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행위는 그 본체와 현상 다시 말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적 틀과 그 형태를 따라가거나 반하는 표면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직시하고 지금까지의 보편적으로 습득해 온 감각적 인식을 어떻게 넘어서 수 있을 것인가이다. 그렇기에 그의 작업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불명확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그의 인체는 아무것도 아님과 동시에 완전하게 어떤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소로 변모된다.

그럼, 이병호가 추구하는 조각은 무엇일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조각은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되물어 봐야 하겠다. 납작한 이미지에 익숙한 우리는 조각을 실체를 가진 대상이 아닌 가상의 것처럼 느끼거나 그 입체성과 질량의 무게감보다는 평면적이고 가벼운 감각으로 느끼지는 않는가?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실체적 근원과 본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시각적인 실체를 가지기보다는 비가시적 대상인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실존과 감각의 간극 사이에 놓여있다. 이처럼 그의 작업도 조각적 실재와 감각적 성질이 접촉하여 충돌하고 분열하며 다시 조합된다. 그리고 이는 처음에 제시되는 형태에서 무심한 작가의 손에 의해 일정 부분을 덜어낸 것들이 결합한 비정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물론 그의 조각은 명확하고 거대한 형태와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안과 밖이 없고 위와 아래도 없으며 정해진 규칙도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작업 과정은 결코 어떤 목적지에 닿을 수 없는 영역으로 그의 조각을 이끈다. 이렇듯 그에게 조각은 명확하게 정의 내려 붙잡을 수 없는 찰나적 시공간에 머문다. 그렇기에 그의 작업은 선형적 시간의 흐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조형성보다는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고 결합하기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시공의 방향성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움직임이 관건이다. 결국 그에게 조각이란 어떤 기준이나 표준이 작동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며, 어떤 선택에 의한 결과의 일시적 잔상과 같다. 그렇기에 작가조차도 조각의 일부를 구성하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의 조각은 도달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는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유동적인 것이 되어간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느 한 조각(PIECE)의 이야기이다.



《모뉴멘탈》 전시전경, 2023, 뮤지엄헤드, 서울



Eccentric Scene

2023

plaster, urethane, styrofoam, wood, stainless steel, epoxy

135 x 124 x 200 cm







《5 FIVE II》 전시전경, 2022, 스페이스소, 서울

Anthropometry

2017 / 2022



Anthropometry

2017

polyurethane, wood

144 x 70 x 51 cm



Anthropometry

2017-2022

polyurethane, wood

144 x 70 x 51 cm



Anthropometry

2022

painted sculpture

144 x 70 x 51 cm



이병호 작가는 2016년부터 조각에서의 원형, 복제, 분절, 접합, 해체, 변형, 확장, 안과 밖, 표면과 이면, 작품과 지지체, 컬러링과 모델링, 캐스팅과 스캐닝, 구상과 추상, 완결성과 시간성 등의 개념과 제작 방식과 과정을 인체조각에 적용하고 구현해오고 있다.

<Anthropometry>(2017/2022)은 2017년의 개인전의 대표작이었던 작품으로 컬렉터에게 소장되어 다른 작품들 처럼 전시 후 다시 파편이 되거나 새로운 다음 작품의 일부가 되는 방식으로의 변형이 '중단'된 작품이었다.

완성이라는 결말을 잡고 있지 않은 작품은 5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재료적 특성으로 인한 변색의 과정을 지나왔고 작가의 작업실로 옮겨져 2022년 작가가 진행해 오고 있는 'color on sculpture' 과정을 거쳐 색을 입은 새로운 조각이 되는 혹은 컬러링이라는 작업을 위한 지지체가 되어 2022년의 <Anthropometry>로 변신하였다. 예측할 수 없는 형상과 시간을 내재하고 있는 이병호의 조각은 완성이라는 결말을 잡고 있지 않다.



《매끄러운 돌밭》 전시전경, 2022, 웨마미술관, 청주



Eccentric Abattis

2022

color plaster on sculpture, 117 x 120 x 110 cm



Eccentric Abattis

2022

color plaster on sculpture, 161 x 120 x 124 cm



Eccentric Abattis

2022

action figure(The Thinker), concrete, painted sculpture, 42.5 x 35 x 35 cm



Eccentric Abattis

2022

painted sculpture, 52 x 49 x 28 cm



이병호는 '비어있음(空)', '비어있는 실체'를 조각한다. 그는 나타나지 않고 감각할 수 없으며 보이지 않는 실체, 비물질적 차원의 존재에 대해 사유하고 이를 고전적인 조각 형식인 인체조각으로 제시한다.

인체측정 연작은 조각사의 여러 작품들을 참조하되 표면과 윤곽선을 해체하고 윤곽선 아래 보이지 않지만 잠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세와 존재들을 출현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이를 위해 작가는 하나의 원형을 다수 복제하고 윤곽선-표면을 해체하여 내부를 드러내 다시 표면화 시킨다. 해체와 접합을 통해 동세와 형태를 만들고 이전의 인체측정들이 또 다시 분절과 결합의 과정을 거치고 다른 시간에 존재했던 표면들과 만나 또 다른 표면을 만들며 끊임없이 변화해간다.



Anthropometry

2021

polyurethane, plaster, wood, 94 x 76 x 41 cm

-

Anthropometry

2019

polyurethane, plaster, wood, 97 x 73 x 42 cm





Eccentric Abattis #1

2021

lacquer paint on sculpture, 24 x 21 x 21 cm



Eccentric Abattis #2

2021

lacquer paint on sculpture, 24 x 24 x 24 cm



Eccentric Abattis #9

2021

lacquer paint on sculpture, 24 x 24 x 24 cm



The Centaur

2021

polyurethane, plaster, wood, wire, 196 x 114 x 165 cm



Statue X

2021

polyurethane, plaster, wood, wire, 196 x 114 x 165 cm



개인전 《Three Shades》 전시전경, 2020, 스페이스소, 서울

무제(상자 속의 육체)

안소연 (비숀비평가)

1. 세 망령의 징후와 쪼개진 육체

세 망령(Three Shades)이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그것의 현존을 강하게 인식시킨다. 그 말의 이미지가 상기(想起)시키듯, 이 불확실한(shade) 존재의 반복적(three) 출현이 불러일으키는 참된 경험은 (애초에 표면이라고 말해도 좋을) 그들에 가려진 모호한 육체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이고, 그것은 볼 수 없음을 가졌다. 로댕의 <세 망령>(1880)은 마치 상자 속에 있는 육체처럼 꼼짝하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축 늘어진 기이한 육체를 덮고 있는 저 그림자의 파동이 형상의 기원을 깨우려는 듯 그 표면에 부딪쳐 출렁인다.-<세 망령>은 마치 직육면체의 대리석이나 그와 같은 물질적 원형으로부터 출현한 것처럼, 해부학적 사실의 왜곡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체 윤곽을 감싼 육면체의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구조와 그러한 육체를 가진 인간 형상을 완전하게 중첩해 놓지 않았는가. 옆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그(들)의 머리에서부터 목으로 이어진 수평의 선과 어깨에서부터 힘 없이 늘어진 팔을 지나 다리로 내려오는 수직의 선들을 보라.- <아담>(1880)은 그 형상의 기원이 이미 지어진 육체로서 재건(再建)된 것임을 알린다. 말하자면, 인간 형태에 대응하는 추상적 직육면체의 상자 속에 들어있는 형상으로서의 근원적인 부재(죽음)와 흙에서 만들어진 불확실함의 현존(창조)을 나타내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1511-1512)를 이 형상의 또 다른 기원으로 볼 때, 왼쪽 팔에 신의 손을 가진 아담의 육체는 강렬한 분절-자신을 창조한 신의 손을 절단-과 접합-자신이 응시하던 신의 손을 소유-을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 형상으로 존재함을 밝힌다.

<세 망령>은, 아마도 이 육체가 끝없는 소멸/죽음과 생성/창조의 연속에서 스스로 형태의 지연을 반복함으로써, 현존하는 부재 혹은 공백 혹은 기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돕는 것인지도 모른다. 끝없는 참조와 복제, 해체와 절단, 접합과 배열의 반복적 시도들이 역설적이게도 불가능한 미완의 육체에 대한 비판적 현존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모든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형상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된 징후들을 살피게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병호의 전시 《Three Shades》는 로댕이 조각의 관습 안에서 형상의 기원을 둘러싸고 탐구했던 재인식의 실천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또한 수없이 갱신되어 온 자기 자신의 조각(적 형상들)에 대한 작은 역사에도 다리를 놓는다. 예컨대, <Following Adam's pose> (2020)와 <The Two Shades>(2020)는 서로 별개의 상이한 자리에서 산산조각 난, 심지어 그 파열과 절단이 스스로의 형상을 비판적으로 구축하고 접합하는 “세 망령”의 징후를 과도한 가시성의 경험 안에 밀어 넣은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징후적 존재에 대하여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즉 가시성에 대한 초과를 경험하게 하면서 말이다.

<The Two Shades>에는 뚜렷한 두 개의 형상이 존재한다. 뚜렷하다는 것은 먼 기원으로부터 재건된 어떤 형상에 대한 강렬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저 육체를 감싸고 있는 숭한 기원으로서의 시간과 장소의 복잡한 얽힘을, 참된 기억으로 존재하는 저 육체의 현존을 (단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무지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형상이 알게 매장되어 있는데, 두 망령 밑에서 제 육체를 열어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고 단단한 육면체 속의 쪼개진 형상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Boy in the Box>(2011)의 유령처럼, 다시 깨어난, 그것과의 비밀스러운 닮음을 드러낸다. <The Two Shades>는 그것을 둘러싼 직육면체의 상자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 열린 상자, 열린 몸, <The Two Shades>가 우리 앞에 현현(顯現)하는 방식이다. 이병호는 <Statue X>(2019)를 보관해 온 상자를 열어 그것을 비스듬히 기대어 놓은 채로 그 기울어진 <Statue X>를 받침대 삼아 새로운 형상을 접합했다. 그것이 <The Two Shades>에 대해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알아보는 바다.

2. 주물 속 새로운 인간 형상

<Statue X>는, 이병호가 《Le Vide, 쉼의 영역》(2016)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해 온 형상의 기원과 관련해서, 일련의 징후를 재건하여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마치 이미 존재했던 것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음을 예견하는, 자연과 유보의 형상으로서 덮개에 가린 어떤 묵시(默示)가 드러나려는, 그 순간의 강렬함. 이병호는 《Le Vide, 쉼의 영역》보다 조금 앞서 세 개의 인체 형상으로 구성된 <Taxidummian>(2016) 시리즈를 제작하였고, 같은 해에 <Anthropometric Torso>(2016), <Triptych>(2016), <Two Figures>(2016) 등을 제작해 개인전 《Le Vide, 쉼의 영역》에서 일련의 조각적 함의를 확장시켜 보여줬다. 이때, 그는 <Taxidummian>을 몸통만 남기고 절단하여 다른 이름을 붙여서 재사용하거나 혹은 살아있는 인체로 직접 주형을 만들어 다수의 주물로 떠낸 후에 그 동일한 것들을 쪼개 여러 형상을 만드는데 활용했다. 이에 대하여, 《Le Vide, 쉼의 영역》에서는 “공백”의 화두를 내세워 주형의 내부에 맞는 주물의 표면과 주형이 보유하고 있는 공백으로서의 조각 표면의 내부를 탐구했다. 결과적으로 공백/내부의 영역에 잠재해 있는 형상에 대한 다수성의 논리와, 그가 참조했던 이브 클라인의 인체 측정 퍼포먼스가 동일한 원형이자 살아있는 몸에서 다수의 형상을 (재현없이) 캐스팅했던 역설적 함의를 자신의 작업에 가져와 공유했다.

이후, 《Anthropometry》(2017)부터는 본격적으로 살아있는 인체 캐스팅 방식으로만 주물을 떠내 다수의 연작 가운데 <Anthropometry-Walking woman>(2017) 같은 “콜라주 된 몸”의 형상을 전시했다. 그러한 제작 방식은 《Statue X Statue》(2018)에서 또 다른 <Anthropometry>(2018)와 <Statue X>(2018)로 이어져 맥락을 한층 강화시켜 놓았으며, 동명의 <Anthropometry>(2019)에 이르러서는 같은 주형을 사용한 인체 주물들로 일련의 의미심장한 군상을 제작했다. 같은 해에는 2016년에 만든 <Two Figures>를 가져다 <Statue X>(2019)를 만들었고, 그것이 <The Two Shades>에서 내가 기억하고 알아본 바로 그 형상이다. 다시, <The Two Shades>는 이번 전시에서 <Statue X>와 새로운 인체 형상의 접합을 보여줌으로써, 이병호의 인체 주물 작업이 참조적으로 갱신해 온 조각의 시간성과 원형 및 형상의 기원 문제를 역동적으로 엮어 새롭게 환기시킨다. 적어도 2016년부터 5년간 지속해 온 “Anthropometry”와 “Statue” 중심의 연작에서 이병호가 모색했던 (반)조각적 시도들은, 조각에 대한 매우 다양한 참조와 갱신을 불러와 비판적 형상으로서 자기 형상의 기원 및 원형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파열시켜 그 산산조각 난 형상의 더미들 속에서 새롭게 생성된 그 내부, 즉 깊숙한 상자 안에 매립되었던 형상에 대한 (조각난) 기억을 다시 발굴하는 것이다. 결국 그 내부의 혹은 덩어리의 쪼개짐이 그늘에 가려진 그 형상의 예측 불가능한 표면에 이르도록 말이다.

그는 내내 조각에서의 주물 방식을 작업에 활용해 왔는데, 거기서 파생된 조각적 특징들을 하나의 변수 삼아 변형 혹은 제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부각되어 발생하는 “조각적인 사건들”에 몰두해 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작업으로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전, 이병호는 한동안 실리콘 조각에 대한 실험에 집중했었다. 이때에는 인체를 직접 재현하거나 살아있는 인체를 그대로 주물 뜨는 방식에서 형태의 견고하고 완전한 윤곽선과 조각의 표면 및 내부의 관계를 비롯해 조각의 양감 문제를 재고해 보는 태도로 드러났다. 그러던 것이 보다 급진적으로 조각의 내부, 즉 조각의 형태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내부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면서, 일련의 조형적 알리바이로 채택된 박제 기술을 참조하여 <Taxidummian>을 제작하게 됐던 모양이다. 그로부터 미세한 (조각적) 변수들을 재설정하며 현재에 이른 이병호의 작업을 오랜 기간 꾸준히 봐온 나는, 《Three Shades》가 포괄하는 인간 형상의 (반)조각적 가능성을 다시 살핀다. 그의 작업은 변수를 재설정하는 순간 다른 맥락의 논의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의 기존 작업을 재인식하고 재참조하는 과정에서도 작동하며 동시에 그가 스스로 수행하는 개별적인 작업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의도된 지점일 것이라 가늠해 본다.

그는 《Three Shades》에서 로댕에 대한 참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Following Adam's pose>와 <The Two Shades>의 관계 안에서 더욱 구체적인 암시로 드러나면서, 그가 참조해 온 로댕의 인체 주물 작업에 있어서 되풀이되는 반복적 시도에 대한 알리바이를 재구성한다. 두 망령은, 우리 눈 앞에 드러난 두 개의 육체는, (형상의 기원에 있어서) 지연된 육체로서의 <아담>과 동일한 주형에서 출현한 <세 망령>의 조각적 갱신을 환기시킨다. 말하자면, 로댕이 애초에 소조로 만든 인간 형태, (만약 그것이 형상의 기원이라면,) 그것을 주조할 때 발생하는 절단, 해체, 봉합, 지연 등의 필연적인 사건들을 조각적 환영을 지켜내기 위해 은폐하지 않고 (반조각적인) 그것으로 조각적 사건을 현존으로 가져왔듯, 이병호는 그 사건의 발생을 지속시킨다. 로댕은 소조의 주조 기법에 내재된 복제 기술과 절단 및 접합을 통해 총체적이며 동일한 원형의 형태를 수호하는 조각적 관습을 비틀어 그 역설적 행위가 초래하는 조각적 경험을 환기시키며, (조각에 대한) 일련의 변증법적인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병호는 그 사건에 뛰어들어, 또 다른 참조적인 시각에서 주물 속 새로운 인간 형상의 계보를 상상하며 조각가의 망령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3. 비틀어진 표면과 형상의 갈라짐

지난 해에 나는 아홉 점의 인체 형상으로 구성된 <Anthropometry> (2019)를 보고 나서 로댕의 <지옥문>(1880-1917)을 경유하며 그에게 작업에 대한 인상을 말했고, 몇 달 전에는 그가 거의 완성된 <Following Adam's pose>와 <The Two Shades>를 앞에 두고 그의 작업실에서 로댕의 “아바티(abattis)” 이미지를 내게 보여주면서 이 쪼개진 육체(들)에 대하여 아직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아채게 했다. 그와 희미한 말을 주고 받을 때, 그의 작업실 선반에는 <Anthropometry-Walking woman>의 다리인 것 같은 검은 형상이 덮개에 싸여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다. 내 뒤로는, 의자처럼 생긴 받침대 한가운데 꼬챙이 같은 긴 막대를 고정시켜 놓고 그 끝에 인체의 형상을 거의 허공에 띄워 놓은 것처럼 꽃아 놓아 동통 무게를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체의 주물이 왜곡된 형태로 시야에 들어왔다. <Torso>(2020)라고 이름 붙인 이 작업에 “color plaster on sculpture”라는 상세 설명을 붙인 이병호는, 회화의 재료를 “oil on canvas”로 표기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참조해 일련의 작업에 대한 재료 표기를 달리하여 조각의 “표면”으로 시선의 응시를 유도함으로써 비틀어진 인체의 주조된 형상에 대하여 그 안(형상의 내부)과 밖(형상의 표면)의 관계를 묻는다. 비틀어진 형상으로서 <Bust>(2020) 연작 또한 그 물음 사이를 지난다. 결국, 우리가 조각(적 형상)을 지각하는 것은 끝없이 생성되고 변형되고 소멸되는 힘을 한시적인 형태로 붙들어 놓고자 하는 조각의 저 견고한 표면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불러일으킨다. 비틀어진 형상의 한시적인 조각 표면에 아크릴 물감(acrylic on sculpture)을 칠해 놓은 새로운 형태로서의 두상처럼.

로댕은 그의 시대에 조각의 확고한 윤곽선을 되레 지연시키기 위해, 주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조각적 흔적을 지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흔적으로 조각적 환영 뒤에 오랜 시간 가려져 있던 새로운 인체 형상(의 가능성)을 복구/갱신함으로써, 반-조각적 실체의 조각적 현존을 불러 올 수 있었을 테다. 세 망령의 현존처럼. 한편, 이병호는, 이미 자신의 시대를 초과해 버린 로댕의 조각적 유산을 제 손에 쥐고 그 망령에 사로잡혀 있던 조각적 상상을 다시 망상하는 일에 한참 몰두해 있다. 요컨대, 로댕이 조각의 표면을 윤곽선에 비추어 인식했던 것에서 그것의 알리바이처럼 붙잡아 놓았던 몇몇 (반)조각적 사건들을, 그는 그의 가설대로 조각의 표면을 그 내부와의 관계에서 재인식하는데 가져다가 전유해 사건의 알리바이에 대한 재구성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테면, 이병호는 주조의 흔적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쪼개진 육체 더미로서의 아바티에 주목해, (로댕이 했던 대로) 쪼개진 육체들의 이접을 통해 윤곽선/표면을 지움으로써 형상을 지연시키는 대신 (더 급진적으로 더 작고 더 알아볼 수 없게) 쪼개어진 육체의 공백/내부를 드러냄으로써 갈라진 표면을 비틀어 형상을 지연시킨다. 그것은 추상과 구상, 육면체의 상자와 인간 형상 사이의 경계를 끝없이 왕래한다.

2016년부터 시작해 “인체 측정(anthropometry)”과 “조각상(statue)”으로 대표되던 일련의 인체 형상 작업은, 본격적으로 조형적 실험을 매개하던 변수들이 조정되면서 그의 조각적 상상의 함의를 보다 구체화 했다. 그는 살아있는 인체를 직접 캐스팅하여 (형상의 기원으로 삼을 법한) 주형을 얻어내고 그것으로부터 다수의 주물을 주조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형상 출현 이전의) 추상적이고 물질적인 조각적 원형으로 재인식하여 그 덩어리, 즉 동일한 것으로 꼭 찬 순수한 형태를 수없이 조각내 갈라진 형상, 지연된 형상, 유보된 형상의 조각적 현존을 감행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재현하지 않는, 무제의 “물질”로서 현존하는 인간 형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말이다.



The Two Shades

2020

polyurethane, plaster, wood, wire, iron, 205 x 43 x 135 cm



Following Adam's Pose 2020, polyurethane, wood, wire, iron, plaster, 235x285x240cm



Bust #8

2020

acrylic on sculpture, 40 x 16 x 14 cm



Bust #4

2020

plaster on sculpture, 47 x 16 x 11 cm



Bust #5

2020

plaster on sculpture, 38 x 14 x 14 cm



Bust #6

2020

polyurethane, 39 x 18 x 16 cm



Bust #7

2020

polyurethane, 43 x 15 x 17 cm



Torso

2020

color plaster on sculpture, 40 x 110 x 3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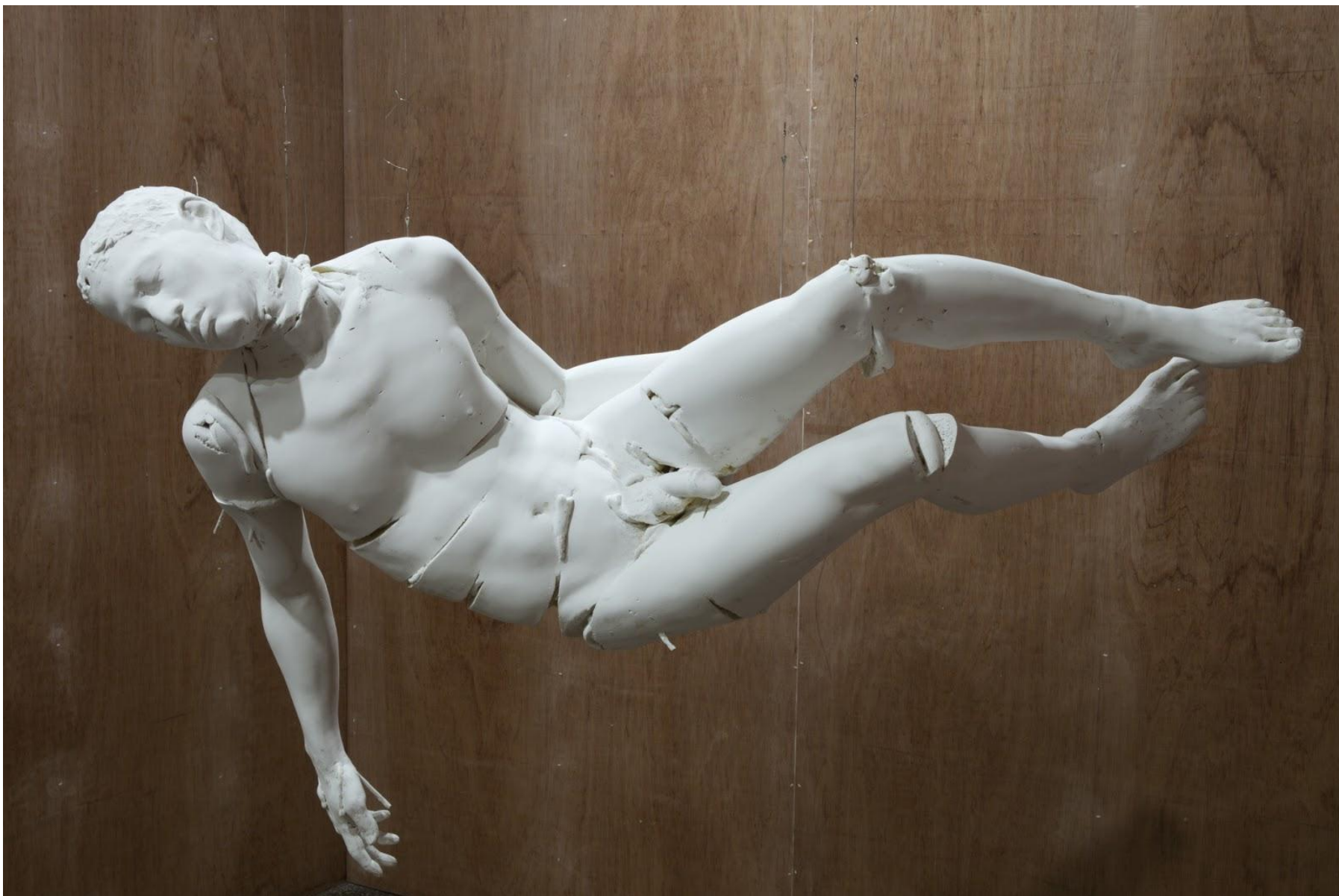
《반복과 차이:시간에 관하여》 전시전경, 2019,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Anthropometry 2018-2019, polyurethane, plaster, wood, dimensions variable



《반복과 차이:시간에 관하여》 전시전경, 2019,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Anthropometry 2018, polyurethane, plaster, wood, 88x144x38cm







Anthropometry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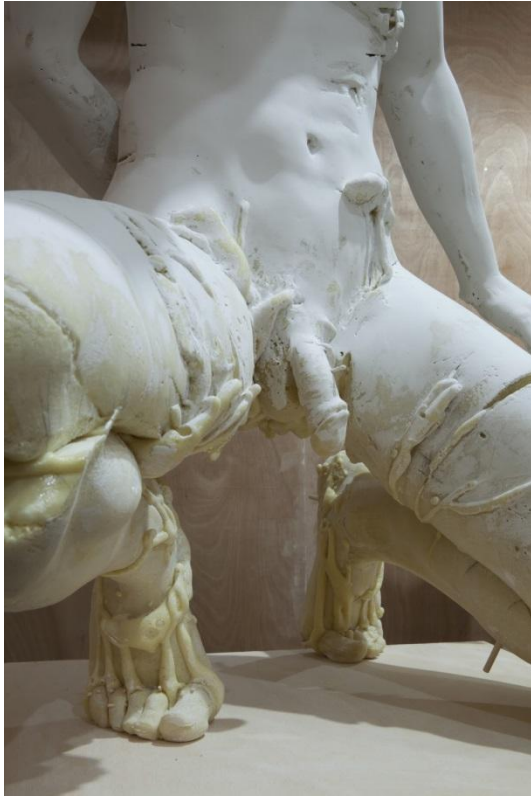
polyurethane, plaster, wood, 100 x 87 x 57 cm



Anthropometry

2018

polyurethane, plaster, wood, 100 x 87 x 57 cm





개인전 《STATUE X STATUE》 전시진경, 2018, 상업화랑, 서울



고전주의적 인체조각의 과정 중 완성단계의 형태와 매스를 최초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에서부터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것은 물성이 강한 조각적 표면으로 귀결되어, 유동할 수 없이 고착되는 단계. 즉, 조각적 '완결성'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완결'을 본 작업의 시작단계로 가져와 기본의 단일 형태와 매스를 미리 설정하고 그것의 윤곽을 해체하고 재조합 하는 방식으로 무한하게 변형, 확장 하고 있다. 완성에서 시작되는 본 작업방식은 완성이 결여된 채 진행 되는데 이 작업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진행형의 조각과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STATUE X

2018

polyurethane, plaster, wood, 29 x 119 x 139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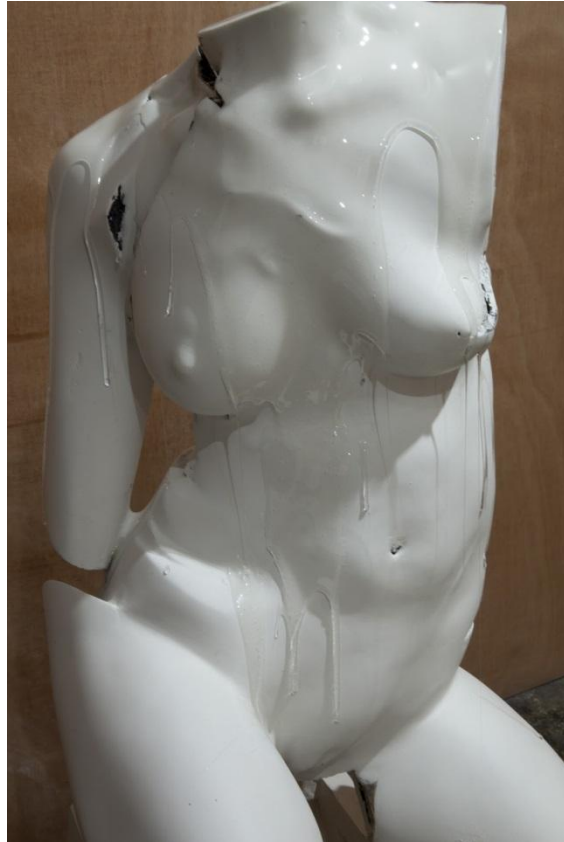




STATUE X - Torso

2018

polyurethane, plaster, wood, epoxy, 106 x 54 x 70 cm





개인전 《Anthropometry 인체측정》 전시전경, 2017, 스페이스소, 서울



Anthropometry

2017

polyurethane, plaster, 62 x 60 x 139 cm



Anthropometry

2017

polyurethane, plaster, 144 x 70 x 51 cm



보이지 않는 것의 재현

정현 (미술비평가, 인하대학교)

“양태란 발생하는 모든 것, 즉 파동과 진동, 이주, 문턱과 구배, 특정한 모태로부터 시작해 특정한 유형의 실체 아래에서 생산된 강렬함이다.”

틀리즈 & 가타리,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3, 295쪽

그림이 인간을 겉모습을 재현하려는 행위라면, 조각은 인간을 만드는 행위에 가깝다. 흙으로 빚은 인간의 형상, 무한한 염원을 담아 만든 투박한 민초의 불상은 인간이 조각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정확한 재현이 아니란 걸 알려준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장소를 차지하고 우뚝 서 있는 조각상을 그저 바라보는 대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조각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숭배와 혐오, 서로 대립되는 두 감정을 산출한다. 수많은 기념동상은 이념과 체제의 변화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 흥분한 군중은 실제 인물을 대신해 그/그녀를 닮은 조각상에 분풀이하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르네상스 시대에도 조각이 우상이 되는 걸 염려했다는 사실은 인체 조각이란 실존과 재현이 서로 분리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떠올리게 한다.

조각이 인간의 형상을 다시 적극적으로 재현하기 시작한 건 20여 년 전부터였다. 그 동안 구상 조각이 덜 보였던 이유는 모더니즘 미학 체제에 따라 물질 자체의 물성과 장소를 점유하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대지와 자연에 개입하여 생성과 소멸의 시간성을 강조하여 재현 조각의 관성에서 벗어나려는 모더니즘 정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재등장한 인체 중심의 구상 조각은 인간 형상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마주한다. 새로운 인체 조각은 신체와 장소의 관계를 실험하고, 상품자본주의를 극단으로 전유하고, 인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재현이란 미학적 체제를 모호하게 만들고, 극사실적 재현을 통하여 포스트 휴먼의 불안을 야기하는 등, 인류가 겪고 있는 폭력, 혐오, 불안, 단절로 치닫는 동시대의 개인을 재현한다. 이 조각들은 우상과는 거리가 먼 불안정하고 괴기스럽게 변하는 불확실한 불-안한 신체(dis-easy body)이다.

이병호는 조각의 ‘재현성’ 자체를 문제적으로 본다. 그는 실제 공간을 점유하고 부피와 무게를 지닌 조각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보길 원한다. 초기작부터 꾸준히 천착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 태도는 전에 비하여 훨씬 더 조각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 전시 표제 “안트로포메트리(Anthropometry)”는 인체측정이란 의미를 가지며, 이브 클라인의 작업 제목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여성 모델들이 직접 자신의 몸 위에 물감을 칠한 뒤 벽에 세워진 화면 위에 자기 신체의 얼룩을 남겨 재현의 방식, 그림의 규범에서 한순간에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재현을 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형상을 제시한 작업으로 유명하다. 이전 개인전 <공(空) Le Vide>(2016)에서도 이브 클라인의 흔적은 쉽게 발견된다. 프랑스 현대미술관에서는 몇 해 전에 <Le Vide>라는 기획전을 연 적이 있었다. 미술관 내부에 작품을 하나도 놓지 않은 상태로 전시를 진행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관객들은 텅 빈 공간을 배회하다가 지쳐 미술관을 나오는 전시로도 악명도 높았다. 이병호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조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도 인체 조각을 통해서 말이다. 초기에는 실리콘 조각 내부에 공기 주입장치를 사용해 공기흡입 시 얼굴이 수축되는 다소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 존재, 생명이 무엇인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 박제의 원리를 차용한 대안적이고 가변적인 조각 방식을 통해 인간의 외형과 신체의 내부를 분리한다. 박제가 신체의 외부만을 남기고 내부는 제거한 뒤 형상을 재현하는 방식이라면, 이병호는 바로 그 내부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재현할 수 있는가가 이 작업의 핵심이다.

몸의 재현이란 단순한 아름다움과 유사성에 관한 개념이 아니다. 몸의 재현이란 사회 체제가 만들어내는 가치의 재생산이다. 그런데 재현하되 닮음을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의 원형에서 파생되었지만 서로 동일하지 않는 상태의 몸으로 계속 '변태'한다는 건 미학적 의미를 지닌 몸의 재현이란 개념과 배치된다. 이병호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 위에서 재현의 한계를 실험한다. 그는 이 경계 위에서 조각에 관한 낱지만 여전히 강력한 관심을 향해 미시적인 저항을 펼치는데, 그것은 조각이 신체를 재현한 인공적 가공물(artefact)을 넘어서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존재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조각의 경계에 관한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분석은 이병호가 추구하는 신체가 아닌 신체 너머의 존재성이란 물음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한다. “로댕의 조각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적이고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외적이고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경계선인 신체의 표면이 바로 의미가 발생하는 장소이다.”¹⁾ 크라우스는 신체의 표면은 내부의 힘, 즉 인간의 근육의 움직임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명시한다. 즉 조각의 겉과 속이 연결된 상태로 결국 여기서 말하는 표면(경계)이란 곧 세잔이 지각한 현상학적 세계관과 유사하다. “로댕은 계속적으로 관람자가 작품을 과정의 결과로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상을 이루는 행위의 결과로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을 주목한다.²⁾ 로댕이 자신의 조각의 표면, 형상의 경계 위에 의식의 흐름을 기입했다면 이병호는 시간의 흐름을 분해하고 이를 재조합하여 시간의 질서를 혼합해버린다.

우선 포스터에서 볼 수 있는 이 작업에 대한 일종의 개념적 드로잉부터 살펴보자. 여기에는 모두 두 개의 형태가 혼합되어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측정도, 프란시스 베이컨의 육면체. 여기에 이브 클라인의 사상이 덧붙여진다. 다빈치의 인체가 완벽한 비례를 가진 이상적 인간상이라면, 베이컨의 신체는 이와 배치된다. 그것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유동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광기와 불안으로 이 신체는 인간의 몸에서 탈주하여 기관 없는 신체가 된다. 들뢰즈가 제시한 ‘기관 없는 신체’란 형상 없는 형상을 의미한다. 그가 말하는 노마디즘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다른 것, 이질적인 것의 파편들과 재조합하여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자신의 형상을 해체하여 그 조각들을 반복적으로 재조합하는 것처럼 말이다. 베이컨의 육면체는 고립된 공간이 아닌 변형과 재조합이 일어나는 ‘고원’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병호는 실제 신체를 원형으로 한 주물을 뜯은 후 이를 다수 복제한다. 복제물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을 겪는다. 가슴 일부가 절개되고 엉덩이 부분이 일부 제거된다. 이 파편들은 다른 복제물의 신체 사이로 접합되고 이식된다. 일련의 과정은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다. 미래주의 조각이 동세를 넘어 시간의 경과를 재현한 것과 비교해보면 그와는 반대의 방식으로 시간성이 기입된다. 이병호의 조각들이 앞으로 무엇으로 변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인체의 재현과 형상이 갖는 상징성으로부터의 탈주,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예술가가 예술가로 계속 나아가는 방식일 것이다.

1)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예경, 1998, 42쪽

2) 같은 책, 44쪽 (굵은 체는 필자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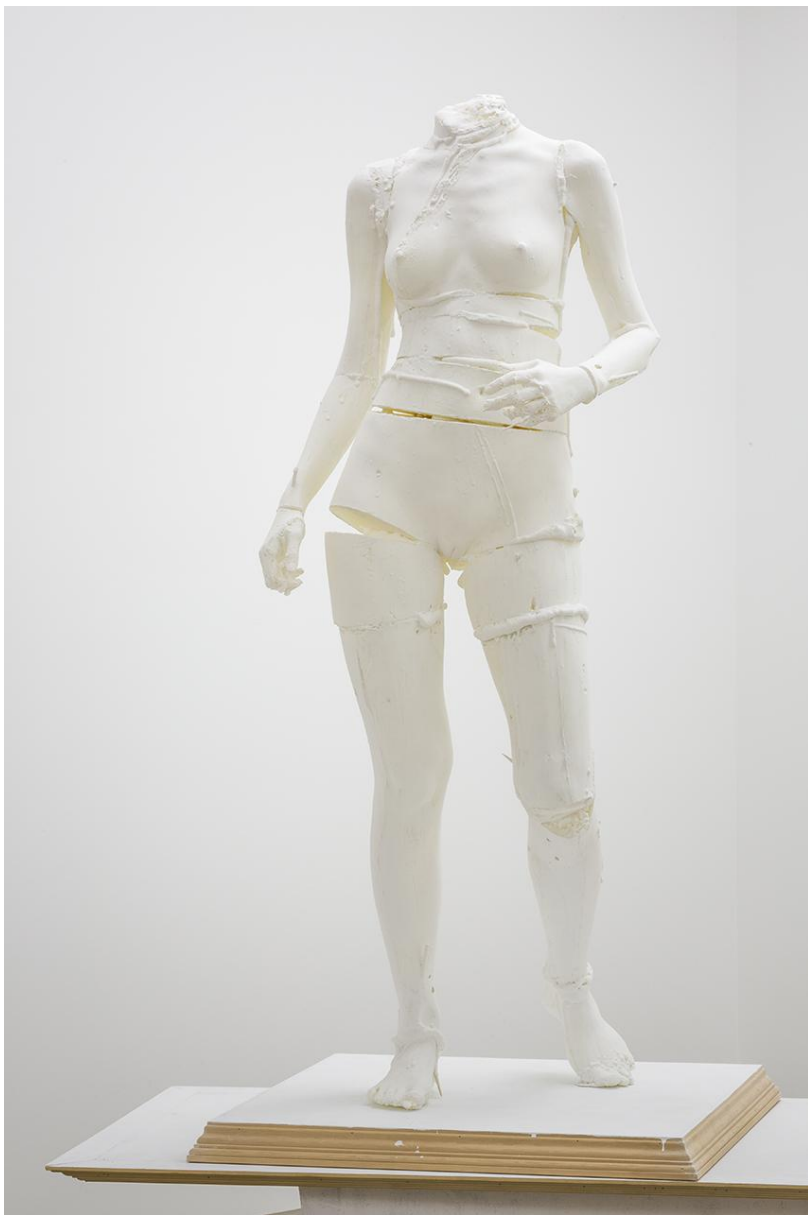
Anthropometry – Walking Woman

2017

polyurethane, plaster, 156 x 54 x 124 cm







Anthropometry – Doryphoros

2017

polyurethane, plaster, 148 x 57 x 53 cm



Anthropometry 2017, polyurethane, plaster, 148x71x77cm



Torsol

2017

polyurethane, plaster, 50 x 32 x 24 cm



Bust

2017

polyurethane, plaster, wood, epoxy, 37 x 18 x 18 cm

이병호 ByungHo Lee

b. 1976

2010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200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Solo Exhibition

2023 PIECE, 페리지 갤러리, 서울
2020 Three Shades, 스페이스 소, 서울
2018 STATUE X STATUE, 상업화랑, 서울
2017 Anthropometry 인체측정, 스페이스 소, 서울
2016 Le Vide 공간의 영역, 갤러리 기체, 서울
2015 Party, 크로스갤러리, 트레저힐 No. 13, 타이페이, 대만
2011 Shade Tree, 갤러리 현대_16번지, 서울
2009 BLOW-UP, 갤러리 잔다리, 서울
2007 Blow-Up, 대안공간 미끌,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

2024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그래도, 낭만', 강정보 디아크, 대구
2024 다이얼로그: 경계인간, 회경재(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2023 모뉴멘탈 Monumental, 뮤지엄헤드, 서울
2022 5 FIVE II, 스페이스 소, 서울
2022 매끄러운 돌발, 쉼미술관, 청주
2021 BMA 소장품 보고,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21 CAST, d/p, 서울
2021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비조각 - 가법거나 유연하거나, 성산아트홀, 창원
2019 에이징 월드 -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9 반복과 차이: 시간에 관하여,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경상남도
2017 잔의 깊음-남겨진 것의 장엄, 수애노339, 서울
2017 2016 신소장품 선選,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 서울
2016 그다음 몸_담론, 실천, 재현으로서의 예술, 소마미술관, 서울

2015 False Start, T.A.V. Barry Room, 타이페이, 대만
2015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헛되다, 서울미술관, 서울
2015 Salon de SeMA,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4 Turn on, 갤러리 기체, 서울
2014 GONG for :: IMAGO, 인디아트홀 공, 서울
2013 Project Zero,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2013 Serious Live Show, club venus, 서울
2013 'What's on' Resident Artist' Showcase,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2013 generation, 홍익현대미술관, 서울
2012 Thought on body, 소마미술관, 서울
2012 Mapping the gray, 갤러리 잔다리, 서울
2011 Blow-up, 엔시소프트 본사, 서울
2010 부산 비엔날레 2010 <진화 속의 삶>,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0 KOREA TOMORROW 2010, SETEC, 서울
2009 Medicine And Art: Imaging a Future for Life and Love, 모리미술관, 도쿄
2009 city net asia 2009,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9 경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8 걸리버, 미술관에 가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8 봄날은 간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8 Reversion, 갤러리 인, 서울

Grants and Residencies

2015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타이페이, 타이완
2013 경기창작스튜디오 단기 입주작가,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2010-2011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Others

2011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7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Collections

서울시립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이병호 ByungHo Lee

b. 1976

2010 M.F.A.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004 B.F.A.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

2023 *PIECE*, Perigee Gallery, Seoul, Korea

2020 *Thres Shades*, SPACE SO, Seoul, Korea

2018 *STATUE X STATUE*, Sangup gallery, Seoul, Korea

2017 *Anthropometry*, SPACE SO, Seoul, Korea

2016 *Le Vide*, Gallery Kiche, Seoul, Korea

2015 *Party*, Cross Gallery, T.A.V. Treasure Hill No. 13, Taipei, Taiwan

2011 *Shade Tree*, Gallery Hyundai_16bungee, Seoul, Korea

2009 *BLOW-UP*, gallery zandari, Seoul, Korea

2007 *Blow-Up*, Alternative Space of Miccle,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

2024 *DIALOGUE: I Am Because We Are*,
Hwigyumjae(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oul, Korea

2023 *Monumental*, Museumhead, Seoul, Korea

2022 *5 FIVE Vol.2*, SPACE SO, Seoul, Korea

2022 *Smooth Stone Field*, Schema Art Museum, Cheongju, Korea

2022 *LINKED*, Gallery Func, Shanghai, China

2022 *Aftereffect*, nook gallery, Seoul, Korea

2021 *BMA Collection Report*, BMA, Busan, Korea

2021 *CAST*, d/p, Seoul, Korea

2021 *The Chronicle of Lost Time*, SNU MoA, Seoul, Korea

2020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hangwon, Korea

2019 *peel - Imagine its Boundary*, 021gallery, Daegu, Korea

2019 *Aging World –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9 *Repetition and Difference: About Time*,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2016 *SeMA Selected Works from New Acquisitions*,
SeMA Nam-Seoul Living Arts Museum, Seoul, Korea

2016 *BODY MATTERS_art as discourse, performativity, representation*,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5 *False Start*, T.A.V. Barry Room, Taipei, Taiwan

2015 *All (is) Vanity*, Seoul Museum, Seoul, Korea

2015 *Salon de SeMA: SeMA's New Acquisitions 2014*, SeMA, Seoul, Korea

2014 *Turn on*, Gallery Kiche, Seoul, Korea

2013 *Project Zero*,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2 *Thought on Body*, SOMA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2 *Mapping the Gray*, gallery zandari, Seoul, Korea

2011 *Blow-up*, NC soft Creative Fountain, Seoul, Korea

2010 *Busan Biennale 2010 <Living in Evolution>*,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2010 *KOREA TOMORROW 2010*, SETEC, Seoul, Korea

2009 *Medicine And Art: Imaging a Future for Life and Love*, Mori Art Museum, Tokyo, Japan

2009 *City net Asia 2009*,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9 *Between The Borders*,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Grants and Residencies

2015 Taipei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2013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0-2011 Seoul Museum of Art Nanji Residency, 5th Artist (Long term), Seoul, Korea

Others

2011 SeMA Young Artist, Seoul Museum of Art, Korea

2007 30 Artists of Year, The 29th Joong Ang Fine Arts Prize, Seoul, Korea

Collection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Gwacheonsi, Korea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Perigee Gallery KHVATEC, Seoul, Korea

Haslla Museum, Gangneung, Gangwon-do